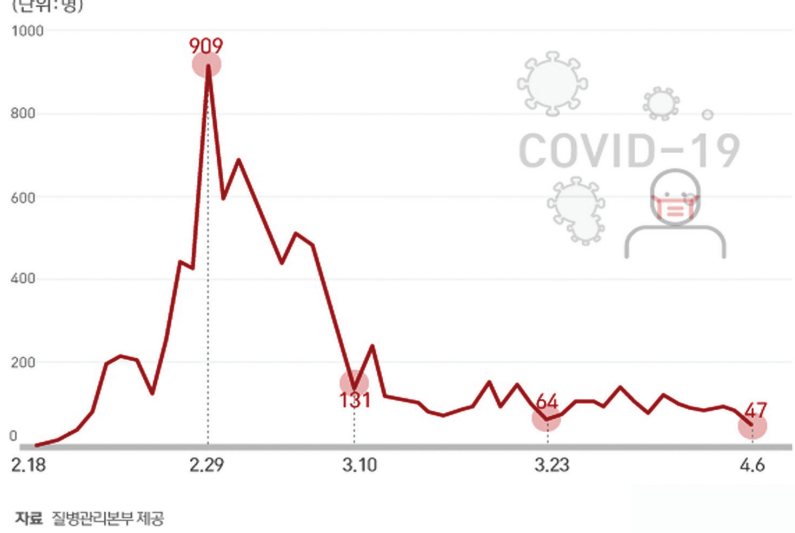


# 일일 확진 50명 미만 뚝...4월 중순 이후 확 꺾일 가능성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6일만에 50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하루만의 숫자로 일희일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를 보더라도 감염자가 1명만 있어도 수천명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경계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해외 입국자 관리가 강화된 4월 이전 해외 입

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엔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을 기록해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만에 일일 50명 이하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경제적 활동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표로 삼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다.

## 주말 검사량 줄어 47명 확진, 46일만에 일상생활 가능 지표 부합 당국 “4월 전 입국자 잠복기 감안, 15일까지 지역사회 전파 긴장”

그러나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동안 진단검사 실시량이 평소 대비 줄어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평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분석량은 1만여건 이상이다. 그러나 주말에는 약 6000여건만이 실시된다. 이번 주말 진단검사량도 약 5847건 수준이다. 이 중 음성 반응은 5800명, 양성 반응은 47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주동안 월요일은 해당 주차의 최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말 진단검사량의 영향이 적지 않은 셈이다.

### ◇검역 강화 이전 해외 입국자... 오는 15일까지 위험성 내재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실시하고 방역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항 검역소를 포함해 지역사회에 잠재된 해외 유입 환자가 일일 신규 확진자의 30~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입국자 관리가 강화된 4월 1일 이전 해외 입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4월 15일 정도다.

이후 16일부터 공항 검역단계에서 확진되거나 격리 중 확진되는 경우는 방역망에 포함되는 통제 가능한 범위로 분류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4월 1일 이전 해외 입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4월 15일 정도까지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달 중순부터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확진자 중 10%, 감염 경로 알 수 없어

그러나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요인 이외에 방역망 통제 벗어남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확진자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제 밖 감염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퍼지면 또 다시 집단감염으로 번진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5% 미만 수준이 되면 방역체

계 아래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중이다. 특히 이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지난 3월 6일 37건(19.8%)에서 3월 31일 3건(6.1%)으로 감소했다. 또 집단감염 사례도 3월 12~21일 11건에서 22~31일 사이 4건으로 줄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동량은 뚜렷한 봄을 맞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과 SKT가 고객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 매주 토요일의 개인 이동량을 파악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이동량은 3월 초 1015만건에서 4월 초 1353만건으로 늘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일상과 방역이 함께하는 생활방역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원호 기자

## 신천지 베드로지파 “시설물 폐쇄 추가 연장...온라인 예배”

###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는 8일 예정된 시설물 행정폐쇄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8일 예정된 시설물 폐쇄 해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및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연장했다”며 “이 정책에 협조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신천지예수교회는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예배와



광주서와 북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7일 광주 북구 오치동 신천지 베드로지파성전(광주교회) 출입문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붙이고 있다.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다. 또 방역완료 후 교회와 부속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있다.

신천지 광주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온 국민들과 시·군·구 공무원 및 의료진 등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교회 및 부속시설 폐쇄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확진자와 식사”...구속 피하러 거짓 진술 30대에 혐의 추가

경찰, 기동대원 등 12명 16시간 격리...사기 혐의에 감염병예방법·공무집행방해까지

사기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서 유치장이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 12명이 격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부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나주경찰서로 이송 전 이날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입감됐고 어깨 염증 치료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자 A씨가 37.2도의 미열 보여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진료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일 금호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A씨가 입감됐던 유치장을 임시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광주 북부와 서부 경찰서 직원, 기동대원 등 총 12명을 격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은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6시간을 경찰서 인근 치안센터에 격리돼 A씨의 코로나19 판정을 기다렸다.

A씨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격리는 해제됐다.

경찰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중 확진 판

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들 뿐이었고 확진자 동선과 금호동 식당이 일치하지 않자 A씨를 추궁했다.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구속이 될까봐 무서워 거짓말했다”고 시도했다.

A씨는 검찰에서 또 다른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이 무서워 거짓 진술을 한 A씨는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사소한 거짓말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시국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